

# 2000년 이후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아프리카 스타일

최 호 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 The African Style in Fashion Designs in 2000's

Ho-Jeong Choi

Ph.D.,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Home Economics, Pai Chai University

(2007. 2. 2 투고)

### ABSTRACT

For the study on the African style reflected in fashion designs since 2000, the applications of African style shown in the four major collections from 2000 S/S to 2005 F/W and some African designers' collections have been analyzed and compared. In this study, 218 pieces of fashion design from the four major collections and 80 pieces from the African designers' collections have been analyzed in three categories - traditional clothes, traditional textile design and accessories.

First, in the formal application of traditional clothes, the western clothes seasoned with the traditional images takes the majority of the cases in both the four major collections and the African designers' collections by 89.4% and 77.5%, respectively. However, the African designers have a tendency to actively receive modernism on the traditional clothes, while most of the western designers in the four major collections re-explain and distort the natural and primitive images of Africa into the ones longed for by the westerners.

Second, in the textile design, the African designers adopt colorful and geometrical patterns of traditional textile designs of West Africa, while various animalistic patterns (36.2%) are used in the four major collections. The western designers mistakenly mix these patterns with those from the West or other traditional patterns from different cultures, obstructing proper understanding of the African culture.

Third, accessories are the cultural elements most widely utilized by the African designers. In the African designers' collections, they are simplified to provide the functions well-matched with the modern clothes. In the four major collections, however, the primitive and colorful accessories found in African tribal culture are used in an exaggerated manner.

Key words: African culture(아프리카 문화), Ethnic fashion(에스닉 패션), own culture(자문화),  
traditional clothes(전통 복식), traditional patterns(전통 직물디자인), traditional  
accessories(전통 장신구)

## I. 서론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특히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문화는 전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더욱 글로벌한 경향이 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에스닉은 현대 패션의 중요한 트렌드로 부각되었다. 아프리카는 풍부한 문화적 원천으로 패션에 있어 언제나 국제적인 관심 지역이나 최근까지도 미개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아프리카 문화의 우수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컬렉션의 주제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프리카의 문화는 아프리카를 연상케 하는 이국적인 패션, 사파리 여행과 사막, 아프리카 전통의 강렬한 색채와 아프리카 전통 복식에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하는 경향으로 또한 세계인의 의생활에서 의복뿐 아니라 헤어스타일, 문신, 악세서리 등에서 아프리카의 문화가 세계 문화에 미친 다양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문화 요소는 비단 현대패션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 세계인에게 다양한 영감을 주고 있으며, 특히 블루스, 재즈, 레게, 재즈댄스 등 음악과 춤의 경우 아프리카의 음악과 춤이 미친 영향은 세계 문화에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는 서구화, 현대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현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인에 의한 아프리카'라는 구호 아래 범 아프리카적인 민족주의 운동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아프리카의 패션디자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7년에 시작된 남아프리카 패션 주간은 이러한 아프리카의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남아프리카 패션 주간의 주요 목적은 자국의 문화를 세계 문화의 지도 위에 올려놓고, 패션 산업을 지원하며, 또한 관광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 아프리카는 이러한 패션 주간을 통해 한편으로는 국제적 트렌드와의 연결을 시도하면서도 패션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자신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이를 세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sup>1)</sup>

세계 패션계에 아프리카 디자이너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1992년 줄리 베틀(Xuly Bet) 라벨을 소개한 말리 출신의 라민 쿠야테(Lamine Kouyate)에서 시작되었다. 쿠야테의 디자인은 베틀시장에서 구입한 헌 옷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이 옷들을 해체한 다음 이음매를 옷 바깥쪽으로 바느질 했다. 오늘날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혁명적인 것이었고, 쿠야테는 이렇게 만든 자신의 옷들을 복잡한 파리의 지하철에서 전시하고, 또 음악계와 소수 민족의 젊은이들과 연계하여 세계 패션계에 아프리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쿠야테는 기존의 의상을 재활용하고 활기 있는 방식으로 도시 문화와 결합했으나 언론과 비평가들은 그의 배경인 아프리카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쿠야테는 아프리카를 영감의 원천으로 디자인 작업에 활용했으며, 그의 디자인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아프리카의 전통이 스며들어 있다.<sup>2)</sup>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Thando와 Vanya Mangoliso 부부가 2001년에 설립한 'Sun Goddess'는 아프리카의 역사와 현대패션의 조화가 특징적인 브랜드로, 남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의상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들을 현대적인 직물을 활용하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표현한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다. 'Sun Goddess'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성공한 패션 브랜드들 중 하나이며, 이제 아프리카 시장을 넘어 전세계로 진출하고 있다.<sup>3)</sup>

아프리카의 복식과 문화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경우 황은정(2005) 아프리카 이미지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최윤진(2003) 아프리카 미술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민혜강(2001) 마사이족의 시각적 이미지를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등 현대패션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는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에 관련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민속풍에 관한 연구는 서구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까지도 이국풍의 이미지는 서구의 시각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로, 현재까지 패션의 출발지로서의 파리, 밀란, 뉴욕, 런던은 가장 중요한 패션 도시로

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화가 가속화되면서 아프리카의 패션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디자이너가 아프리카 전통의 요소를 현대화하여 표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에스닉 패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패션의 디자인 영감이 되고 있으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아프리카 문화와 복식을 연구함에 있어 2000년 이후 4대 컬렉션(파리, 밀란, 뉴욕, 런던)과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스타일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 진원지로서 문화의 발산자로서 현대패션에 나타나는 아프리카 문화의 활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아프리카의 풍부한 문화의 원천을 활용하면서도 현대화를 적극 수용하여 나타나는 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통해 현시대 아프리카의 변화와 시대에 걸맞는 정체성 창조의 노력을 고찰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첫째, 아프리카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전통 복식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2000년 이후 4대 컬렉션과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스타일의 비교·분석을 통해 조형적 특성과 의미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아프리카와 문화에 관련한 국내의 서적과 선행 연구 논문을 통한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위해 2000 S/S에서 2005년 F/W까지의 세계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스타일 218점, firstview.com의 디자이너 리스트를 기준으로 검색된 아프리카 디자이너의 같은 시기 컬렉션중 아프리카 문화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 80점의 조형적 특성을 형태, 문양, 장신구의 영역으로 나누어 양적·질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 II. 아프리카 전통 복식

### 1. 아프리카의 지역적 특성

아프리카 대륙은 석기시대 상태의 사회와 완전히 서구화된 지역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 다른 어떤 대

륙에서보다 정치적으로 그어진 국경에 대한 토착민들의 관심은 미미하다. 대체적으로 아프리카는 특정한 국가보다는 문화적인 지역과 식생 지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구분되며, 이것은 각 지역의 역사, 생활 및 관습의 경우도 포함된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양한 스타일의 의상을 입는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에서 폭넓은 문화와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의복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동 아프리카의 적도 근처에 사는 유목민들은 환경이 매우 덥고 건조하며 거칠기 때문에 신체에 페인팅과 breechcloth<sup>4)</sup>와 비즈(beads) 이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입지 않으며, 다양한 장식이 나타난다. 둘째, 북부와 서부 그리고 동쪽 중앙의 아프리카의 의상 스타일은 이슬람 국가들에서 남성과 여성들이 입는 것처럼 펠러거리는 로브(robe)와 아프리카의 많은 여성들이 사용해 오는 바디 랩(body wrap)을 위해 드레이프되는 직물을 사용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sup>5)</sup>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이너에 나타난 아프리카 문화를 고찰함에 있어 아프리카 전통 복식의 특징이 분류되는 동, 서, 북 아프리카의 전통 복식, 전통 직물 디자인, 장신구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4대 컬렉션과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문화를 비교·분석 연구하였다.

### 2. 서아프리카의 복식

#### 1) 전통 복식

서아프리카는 세네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아이보리코스트,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의 국가들이 있으며 스텝과 사바나 지대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랩퍼(Wrapper)는 서아프리카 여러나라의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착용하는 전통복식으로 여성들은 헐렁하게 맞으며 요크가 들어간 풍성한 블라우스를 상의로 입고 높은 헤드랩(headwrap)을 쓰며 매우 긴 스커트 랩(skirtwrap)을 입는 것이다. 때때로 스톨(stole)과 넓은 새쉬(sash)를 착용하거나 혹은 스커트랩을 가슴까지 끌어 올려 맨다. 이것은 이슬람 국가들에서 남성과 여성들이 입는 것처럼, 펠

럭거리는 로브와, 아프리카의 많은 여성들이 사용해 오는 바디 랩(body wrap)을 위해 드레이프되는 길이 혹은 헐렁하게 맞는 직물을 사용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사진 1> <사진 2> 현재 서아프리카 지역은 전통복식과 서구 스타일의 복식이 혼재하고 있다. 서구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은 서구식 복식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도 전통복식을 다수 착용하며, 직물, 염색, 악세서리 및 일상용 도구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를 부여함을 볼 수 있다.

## 2) 전통 직물 디자인

대표적인 서아프리카 직물은 가나의 켄테(Kente)<sup>6)</sup> 직물로 켄테 직물에 사용되는 붉은색은 탄생을, 청색은 영적인 신성함 또는 사랑, 녹색은 생명력, 밤색은 땅 또는 육체, 자주색은 왕가 또는 영혼, 그리고 오렌지색, 황색 또는 금색은 태양, 부, 또는 영혼을 의미한다.<sup>7)</sup> <사진 3> 아프리카의 염색 기법으로는 수날염(Hand-Print), 바틱(Batik), 이카트(Ikat), 자수, 아플리케(Applique) 등이 사용되었다. 문양은 기하학적인 문양이 상징적 의미의 주류를 이루며, 사용되는 직물의 직조방식에 의해 그들의 상징성이 반영된다. 아프리카 직물의 문양은 동식물을 비롯한 자연물을 주요 모티브로 하며 자연물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기호화된 기하학적 문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물의 문양은 원시 신앙 예술의 영향으로 종교적 의미를 지니며 기하학 문양 개개의 요소는 각 부족의 의미있는 언어를 내포하고 있다.<sup>8)</sup> 서아프리카 일대에서 널리 사용되는 직물의 소재는 면이며 양모와 실크는 중요한 의식에만 사용된다. 가나 아산테 궁정에서 취임식이나 장례식 또는 종교적 축하 행사와 같은 중요한 국가적 행사를 거행할 때에 실크가 사용되었으며 실크 옷감은 왕실 재산의 일부로서 부와 업적을 상징하였다.<sup>9)</sup> <사진 3> 현재까지도 가나의 직물은 위대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아울러 가나직물의 미적 가치를 현대 직물 문양의 모티브로 유도하여 현대 감각에 적합한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대 직물로서의 한영역에 기여하고 있다.<sup>10)</sup>

## 3) 전통 장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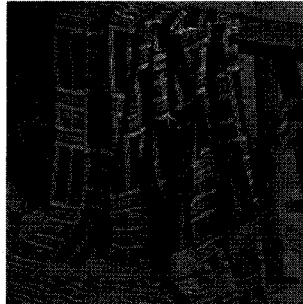
서아프리카의 전통 장신구는 보석류(특히 황금), 놋쇠, 상아, 구슬 호박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브로우치, 귀걸이, 팔찌, 헤드 드레스(Headdress)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의복을 대체하는 경우도 나타나며, 부와 지위, 원시 신앙의 주술적 의미 등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아프리카의 장신구중 헤드 드레스는 서아프리카의 풀라니(Fulani)족에게 매력과 위신을 모두 상징하는 물건이며, 밝은 색상과 투명한 재질의 스카프를 선호한다. 사용되는 소재의 양은 의미를 지니며, 옷처럼 두터운 스카프는 부의 표시이다.<sup>11)</sup> 머리수건인 젤레(Gele)는 요루바(Yoruba)족의 의상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젤레는 신부 특유의 스타일로 빛은 머리위에 둘러 쓰던 것에서 패셔너블한 요루바 복식의 일부가 되었다. 발목장식<sup>12)</sup>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지참품이며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대장간에서 제거하지 않고서는 죽을 때 까지 차고 있어야 하는 엄청난 무게의 발목 장식을 여성의 다리에 채웠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 장식이 그들을 노예처럼 보이게 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발목 장식 착용을 금지시켰으며, 그 후 보다 가볍고 벗을 수 있는 발목 장식 디자인이 사용되었다. 상아팔찌인 'Gungulu'는 코끼리 어금니를 길이 방향으로 잘라 만든 것으로서, 부의 상징이며, 때때로 죽은 아버지를 신분을 증명하거나 또는 숲의 유령들을 물리치기 위한 수단으로 착용한다.<sup>13)</sup> 장식물로 사용하는 동전은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사 달러 및 프랑스 프랑을 주로 사용하며, 최초에는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프리카에 수입되었으나, 이후 사바나 전역에서 머리 장식물로 널리 사용되었다. 풀라니족 남녀 모두 카우리(Cowrie) 조개로 만든 목걸이를 착용한다. 인도양에서 잡힌 카우리 조개는 중세 시대에 차드(Chad)족에 의해 막대한 양이 사막을 통해 전해졌다. 이 조개들은 금과 노예 교역을 위한 화폐로 사용되었고, 1940년대까지 시장에서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sup>14)</sup> <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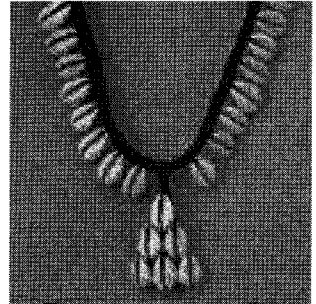
〈사진 1〉 서아프리카 전통복식



〈사진 2〉 서아프리카 전통복식과 금장식물



〈사진 3〉 켄테 직물



〈사진 4〉 카우리 조개 목걸이

### 3. 동아프리카의 복식

#### 1) 전통 복식

동아프리카는 목축 지대로 수단, 케냐, 탄자니아,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의 지역에 많은 이질적이고 특색 있는 부족들이 살고 있으며, 케냐-탄자니아 국경에는 잘 알려진 마사이족이 살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 중 매우 호전적인 마사이족은 수세기에 걸쳐 그들의 독자적인 언어와 영역, 문화적 활동을 영위하면서 마사이족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다. 마사이 부족 원주민 여성들의 의상인 캅카(Kanga)는 마사이 고유의 색채와 패턴을 지닌 장방형의 천으로 상체와 하체, 머리에 각각 둘러 블라우스, 스커트, 망토, 머리 스카프를 구성하게 되는데, 캅가를 두른 차림 자체를 일컫는 말로도 사용된다.<sup>15)</sup> 〈사진 5〉 마사이족과 함께 동아프리카의 또 하나의 상징은 사바나의 대평원에서 여러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자연과 동화를 이루고 살고 있는 거대한 국립 공원과 야생동물을 관람하면서 여행하는 사파리 문화등을 들 수 있다.

#### 2) 전통 직물 디자인

마사이 족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기본으로 선명한 원색들을 사용하며 줄무늬나 체크 무늬를 비롯하여 부족 고유의 기하학적 패턴이 주를 이루며, 이카트

로 직조된다. 청색은 푸른 하늘을 상징하고 마사이족의 신, 은가이(Ngai)를 뜻하기도 한다. 초록색은 식물 또는 초원을 상징하며 이는 유복을 생계로 하는 마사이족에게는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한다. 빨강과 흰색은 주식인 우유와 소의 피를 상징함과 동시에 죽음과 슬픔을 뜻하며, 또한 흰색은 조상을 상징하기도 한다.<sup>16)</sup>

#### 3) 전통 장신구

마시빠이(masippai)는 목과 가슴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마사이 전통의 구슬 세공품이다.<sup>17)</sup> 〈사진 6〉 마사이족의 구슬장신구는 수천년 동안 대자연을 누비고 살아왔던 그들의 역사와 신비로운 신화를 주제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구슬 장식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교신 방법이고 계급, 중요, 정치, 예술적 태도를 표현하고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는 상징적 언어이다.<sup>18)</sup> 마사이족의 장신구들은 다양하고 화려한 색깔의 구슬이나 조개껍질 등을 꿰어서 만든 것으로 온몸을 장식하는 다른 어떤 종족보다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sup>19)</sup> 화려한 마사이족 여성들의 장신구는 특별한 행사나 의식이 있는 날에만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사이족 여성들에게는 이것이 일상복 차림이다. 몇몇의 장식은 결혼식, 성인식, 할례 등의 특별한 의식이나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장식품들은 무늬(pattern), 모



〈사진 5〉 캄카 차림의 마사이 여성들



〈사진 6〉 화려한 구슬 세공 장식

양(shape), 색채(color)에 의해 부족의 규정에 허용되는 일정한 형태로 의해 구별되어지며, 일생을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결혼한 마사이족 여성은 그녀의 재산과 나이에 따라서 더 많은 장신구를 한다.<sup>20)</sup> 여성이 착용하고 있는 보석은 남편의 지위와 부를 나타내며 카우리 조개는 마사이족의 장식품에 폭넓게 이용된다. 이 조개는 다산과 풍요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할례를 받은 소녀들의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하고 머리장식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전통적 의식에 주술적인 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sup>21)</sup>

### 3. 북 아프리카의 복식

#### 1) 전통 복식

북 아프리카는 북부 해안에서 시작하여,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의 아열대 해안지대와 남쪽으로 펼쳐져 광대한 사하라 사막, 남쪽으로 내려오면 모리타니아,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니제르, 차드 등 유목민들과 반유목민들이 사는 지역이다. 북 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속 의상은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많은 유사 관계를 보이며, 북부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등에서는 전통적인 민속 의상을 현재도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고 있다.<sup>22)</sup> 특히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는 '아프리카의 유럽'으로 불리는 독특한 매력으로 많은 디자인의 영감이 되고 있다. 모로코의 의상은 일반적으로는 중

동의 여러나라 복식과 형태가 비슷하며 카프탄, 터번, 베일 등이 기본 의상이고 색상이 다양하며 줄무늬 패턴이 많고, 흰색은 관리나 상류층의 상징색이 되어 터번과 신발까지 흰색이다. 모로코, 알제리 등에서 여성은 흰색, 회색 또는 푸른색의 면이나 개버딘으로 된 헐렁한 젤라바(Djellaba)를 입는데 길이는 발목까지 오고 후드가 있다. 헤드드레스는 검은 색이나 흰색의 면으로 된 짧은 베일이며, 가끔 유럽식 망토인 하이크(hike)를 입기도 한다. 이자르(Izar) 신체 전체를 가리는 목적으로 젤라바 위에 머리부터 뒤집어 쓴다. 모로코, 알제리 등에서는 카프탄(Kaftan)이 매우 일반적인데, 한때는 남녀 모두 입었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여성 의상이다. 형태는 길고 소매가 넓고 헐렁하며, 보통 실크끈으로 만들어진 한줄의 작은 단추들로 앞을 고정한다.<sup>23)</sup> 〈사진 7〉 〈사진 8〉

#### 2) 전통 직물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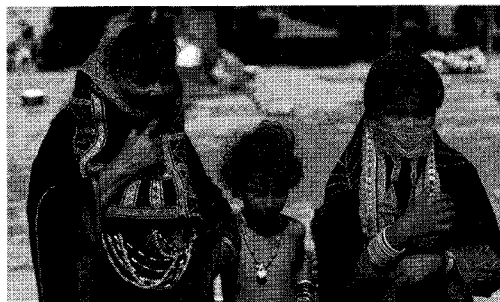
북아프리카의 특권계층은 금실, 은실, 보석 등 금속으로 장식된 직물들을 사용하였으며, 직물에 표현된 기법, 모티브 등은 이슬람 양식에 따르고 있고, 자수와 아프리카의 장식 기법에 의한 기하학적인 모티브가 주를 이룬다.<sup>24)</sup> 아랍인이 많은 대도시는 이슬람교의 엄격한 계율로 인해 장식은 극도로 제한되고, 색상도 검정, 브라운 등 어두운색을 사용한다. 종교 행사때는 흰색을 착용하나 가라앉은 계열



〈사진 7〉 도시지역의 여성 의상



〈사진 8〉 무슬림 의상과 장신구



〈사진 9〉 무슬림 의상과 장신구

이 대부분이며, 주로 해안지방인 대도시의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 일년내내 따뜻하여 가볍고 바람이 잘 통하는 면소재를 사용한다. 그러나 아틀라스 산맥과 사하라 사막 지대에 거주하는 베르베르인은 무늬있는 소재, 머리장식, 구슬 목걸이 등의 화려한 복장으로 아랍인과 대비되며, 푸른색이나 베이지색, 다채로운 줄무늬, 축제때는 원색의 무늬있는 의상을 검정과 매치하기도 한다. 소재는 대륙성 기후로 인해 두꺼운 면이나 모직을 사용한다.<sup>25)</sup>

### 3) 전통 장신구

다양한 머리장식과 헤드 드레스, 모로코 가족으로 만들어진 뒤가 없는 슬리퍼인 바부쉬(babouche), 투아레그(Tuareg) 족들이 부적을 넣어 다니는 가죽끈 장식된 작은 은상자 등이 있다. 〈사진 9〉

## Ⅲ. 2000년 이후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아프리카 스타일

### 1.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스타일

#### 1) 디자이너 선정 및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전통 복식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스타일을 고찰하기 위해 2000년 이후(2000 S/S~2005 F/W) 4대

컬렉션에서 아프리카 문화를 활용한 디자이너를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2000 S/S~2005 F/W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문화의 활용을 고찰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스타일은 총 218점이었으며, 형태별 활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스타일은 전통의 형태를 활용한 변화나 전통 복식의 원형을 그대로 활용하였으나 소재의 변화 등으로 현대화를 표현한 경우를 '전통의 현대화'로, 전통의 문양이나 장신구를 활용하여 서구 복식에 상징적으로 반영된 경우를 '서구복식에 전통 요소 가미'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문화의 활용은 아프리카 전통 복식의 현대화 경향과 서구 복식에 전통적 이미지를 부수적으로 가미하는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4대 컬렉션에서 아프리카 풍 복식을 표현할 때 다수 나타나는 사파리룩은 아프리카로의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도시적인 스타일로 아프리카 이미지를 대변하는 복식이나 아프리카의 전통복식이 아님으로 아프리카 전통복식의 형태 활용의 사례에 포함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스타일은 아프리카 전통 복식의 형태를 활용하기보다는 서구복식에 아프리카 전통 이미지를 가미하는 경우가 89.4%로 대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아프리카 문화를 활용한 4대 컬렉션 디자이너

	2000 S/S	2000 F/W	2001 S/S	2001 F/W	2002 S/S	2002 F/W
파리	-	Isabel Marant, Ernmanuel Ungaro	Celine	Bernard Wilhelm	YSL	-
밀란	Bluemarine	Antonio Berardi	D&G, Sportmax	-	-	Trussardi
런던	-	Alexander McQueen	Miguel Adrober	-	Blaak, Boyd, Emma cook	-
뉴욕	-	-	-	-	Mickael Kors	Castel Bajac
	2003 S/S	2003 F/W	2004 S/S	2004 F/W	2005 S/S	2005 F/W
파리	Dries Van Noten, Isabel Marant, Valentino, Paco Rabanne, Lanvin, Gyvincy, Clements Ribeiro, Scherrer	Nina Ricci, Lanvin	Romeo Gigli	Dior, Kenzo Christian Lacroix	Chacharel	-
밀란	Prada, Ferragamo, Gattioni, Versace	Roberto Cavalli	-	-	Fendi, Ferre, Bluemarine, Gucci, Marni	-
런던	Boyd	-	-	-	-	-
뉴욕	-	-	Donna Karan	-	Jil Sander	-

\* 표의 '-'는 본 조사에서 아프리카 문화의 활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시즌을 의미함.

〈표 2〉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스타일

(2000 S/S~2005 F/W)

구분	아프리카 전통 복식의 형태 활용	서구 복식에 아프리카 전통 이미지 가미
총 218	23	195
(%)	10.6	89.4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전통 복식의 활용은 동물 문양이나 아프리카의 전통 직물디자인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의 원시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경향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며, 복식의 형태는 서아프리카 랩퍼나 북 아프리카의 카프탄 스타일, 동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전통복식의 형태를 차용하였으나 원색의 비즈 대신 메탈릭한 재료나 골드 등을 활용하는 등 서구인에 의해 재해석된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4대 컬렉션에서 서구화된 복식에 문양이나 장신구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문화를 표현하는 다수의 경우, 진정한 의미의 아프리카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서구인이 동경하는 아프리카 대자연의 이미지나 원시적인 느낌을 서구적인 해석에 의해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사진 10-1> <사진 10-2>

### 2)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전통 직물 디자인

2000 S/S에서 2005 F/W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전통 직물디자인의 활용한 조사한 결과 아프리카 전통 직물 디자인을 활용한 전체 디자인 수는 총137점이었으며, 활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전통 직물디자인 활용

(2000 S/S~2005 F/W)

문양	자연문양	동물문양	기하학적 문양	기타
총 137	31	46	41	9
(%)	24.4	36.2	32.3	7.1

〈표 4〉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전통 장신구 활용

(2000 S/S~2005 F/W)

구분	악세서리	머리장식	머리장식	기타
총 59	46	4	1	8
(%)	78.0	6.8	1.7	13.6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문양의 유형은 자연문양, 동물 문양, 기하학적 문양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동물 문양(36.2%)은 4대 컬렉션에서 아프리카 스타일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한 문양으로 아프리카의 전통 문양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아프리카 전통 직물 디자인의 활용과 함께 살펴보았다.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전통 직물 디자인 활용 사례의 경우 서구인에게 동경이 되는 아프리카의 자연의 이미지를 동물 문양, 원시적인 자연 문양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서아프리카 전통 직물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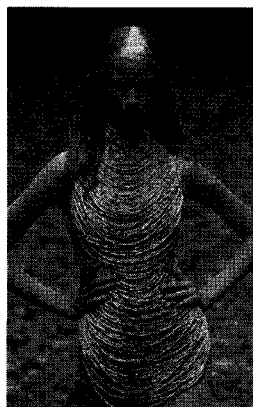
양 역시 다수의 디자이너들이 아프리카 스타일을 표현할 때 활용된다. 그러나 4대 컬렉션에서 나타난 아프리카 전통 직물 디자인의 경우 아프리카 전통 직물디자인에서 이미지를 차용하여 전개되지만, 아프리카의 전통문양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서구적인 문양이나 다른 지역의 에스닉 문양과 혼용하여 활용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전통을 계승하기보다는 서구인에 의해 재해석된 아프리카 이미지를 왜곡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사진 10-3〉

### 3)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전통 장신구

2000 S/S에서 2005 F/W 4대 컬렉션에 나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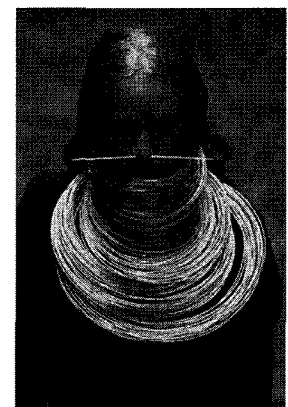
〈10-1〉 Michael Kors 02 S/S



〈10-2〉 Alexander Mcqueen 00 F/W



〈10-3〉 Celine 01 S/S



〈10-4〉 Alexander Mcqueen 00 F/W

〈사진 10〉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스타일

아프리카 전통 장신구의 활용을 조사한 결과 아프리카 전통 장신구를 활용한 전체 디자인 수는 총 59점이었으며, 활용비율은 <표 4>와 같다.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장신구는 악세서리(목걸이, 귀걸이 등), 허리장식, 머리장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전통 장신구 활용 사례는 나무와 조개, 상아, 깃털 등을 활용해 아프리카 부족을 상징하는 목걸이와 팔찌, 발목 장식, 귀걸이 등 아프리카의 화려하고 대담한 장신구를 악세서리로 착용하며, 특히 마사이족의 화려하고 다양한 색깔의 구슬이나 조개껍질 등을 꿰어서 만든 장신구에서 영감을 받은 악세서리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프리카의 원시적이고 화려한 느낌의 장신구는 또한 알렉산더 맥퀸이나 파코 라반 등 전위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아프리카의 장신구에서 형태적인 영감을 얻었으나 화려한 구슬 대신 메탈릭 등 현대적인 재료들을 사용하여 다소 미래 지향적인 느낌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사진 10-4>

## 2.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스타일

### 1) 디자이너 선정 및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전통 복식

아프리카 디자이너의 리스트는 firstview.com의 디자이너 리스트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 10명의 아프리카 디자이너가 검색되었고, 결과는 <표 5>와 같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직은 소수의 디자이너 컬렉션만이 검색되었으며, 정확한 국적을 확인할 수 없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나, 각각의 디자이너 컬렉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검색된 10명 모두의 컬렉션에서 아프리카의 문화 요소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00년 이후 아프리카 디자이너의 컬렉션 중 아프리카 문화의 활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 아프리카 지역 디자이너

(2000 S/S-2005 F/W)

아프리카 (10명)		
• M. Net a anglogoid (1)	• Clivre Rundle (1)	• D Pollard Don Te Jer (1)
• Bonga Bhengu (1)	• Jjulian (1)	• Deon Croom (1)
• Tracy Lee (1)	• Malcolm Kluk (1)	• Xuly Bet (2)
		• Hamish Morrow (5)

\* ( )이 숫자는 firstview.com에서 검색 가능한 해당 디자이너의 2000년 이후 컬렉션 횟수를 표시함

<표 6> 아프리카 문화를 활용한 아프리카 디자이너

디자이너	아프리카 (10명중 10명)											
	00 SS	00 FW	01 SS	01 FW	02 SS	02 FW	03 SS	03 FW	04 SS	04 FW	05 SS	05 FW
anglogoid			✓									
Bonga Bhengu			✓									
Tracy Lee			✓									
Clivre Rundle							✓					
Julian							✓					
Malcolm Klux							✓					
D Pollard Don Te Jer							✓					
Deon Croom							✓					
Xuly Bet										✓	✓	
Hamish Morrow							✓	✓				

■ : 컬렉션 출품 시즌

✓ : 본 조사에서 아프리카 문화의 활용이 나타난 시즌

〈표 7〉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인 스타일

(2000 S/S~2005 F/W)

구분	전통의 현대화	서구 복식에 전통 이미지 가미
총 80	18	62
(%)	22.5	77.5

〈표 8〉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전통 직물디자인 활용

(2000 S/S~2005 F/W)

문양	자연문양	동물문양	기하학 문양	기타
총 45	15	0	25	5
(%)	33.3	0	55.6	11.1

2000 S/S에서 2005 F/W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인 스타일은 총 80점이었으며, 형태별 활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아프리카의 디자이너 컬렉션을 분석한 결과 4대 컬렉션에서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원시적인 느낌 보다는 서구화, 현대화가 진행됨을 보여주는 컬렉션의 구성이 두드러지며, 현대화된 장신구, 디테일, 프린트 등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의 문화를 표현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는 전통복식의 현대화 경향이 총 22.5%, 서구 복식에 전통적 이미지를 가미하는 경우가 77.5%로 서구복식에 전통적 이미지를 가미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서구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부흥을 꾀하고, 아프리카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기보다는 현대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원시적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아프리카의 변화와 노력이 복식을 통해서도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인 스타일은 아프리카 전통 복식의 현대화 경향과 서구 복식에 전통적 이미지를 부수적으로 가미하는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형태적인 면에서 아프리카의 전통 복식의 현대화는 서아프리카의 램퍼와 북아프리카의 카프탄 스타일, 동아프리카의 캉카와 마시빠이 등 마사이족의 전통복식과 장신구에서 영향을 받아 현대화된 스타일이 나타나며, 서구 복식에 아프리카 문화의 요소를 부

수적으로 가미하는 경우는 서구적인 복식의 형태위에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색채나 문양, 장신구 등을 접목시켜 장식적인 요소를 부각시키면서 아프리카 문화의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전통 복식의 활용사례는 전체 디자인 중 총 18점으로 다수는 아니었다. 서아프리카의 램퍼의 형태를 활용하였으나 데님이나 쉬폰 등 전통복식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램스커트만을 착용하고 가슴을 노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전통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블라우스와 램스커트를 함께 착용하는 등의 착용 방식의 변화로도 나타난다. 북아프리카의 카프탄 스타일 역시 소재의 다양화를 통해 현대적인 느낌으로 표현되며 또한 동 아프리카의 상징인 마사이족의 전통복식인 캉카나 장신구인 마시빠이 등은 전통적인 형태를 다소 간소화된 형태로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장식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 11-1〉

## 2)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전통 직물디자인

2000 S/S에서 2005 F/W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전통 직물디자인은 자연문양, 동물문양, 기하학 문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아프리카 전통 직물 디자인을 활용한 전체 디자인 수는 총 45점이었으며, 형태별 활용비율은 〈표

〈표 9〉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전통 장신구 활용

(2000 S/S~2005 F/W)

구분	악세서리	허리장식	머리장식	기타
총 69	61	3	2	3
(%)	88.4	4.3	2.9	4.3

8)과 같다.

가장 많이 활용된 문양은 추상적이고 직선적인 문양을 중심으로한 기하학적인 문양(55.6%)이며, 단순화된 나뭇잎, 꽃 문양 등 자연문양(33.3%)도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또한 바틱 등 염색 기법을 활용한 기타 문양도 발견된다. 〈사진 11-2〉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전통 직물디자인 활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으로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기하학적 문양의 경우 서아프리카 직물 디자인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자연 문양의 경우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표현하기보다는 자연물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원색적인 컬러를 활용하여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아프리카 전통 직물 디자인의 경향을 이어간다. 아프리카 직물 디자인의 문양은 원시 신앙의 다양한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전통 직물 디자인의 경우 이제는 상징적 의미보다는 색상이나 형태면에서 아프리카

의 다양한 문화 요소를 표현하는 장식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 3)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전통 장신구

아프리카의 장신구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필수품이었으며, 부와 지위를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의복을 대체하는 다양한 장신구가 아프리카 문화의 상징이라 할 정도로 발달해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와 함께 장신구는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아프리카 문화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장신구는 목걸이·귀걸이 등의 악세서리와 허리장식, 머리장식, 기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00 S/S에서 2005 F/W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전통 장신구를 활용한 전체 디자인 수는 총 69점이었으며, 활용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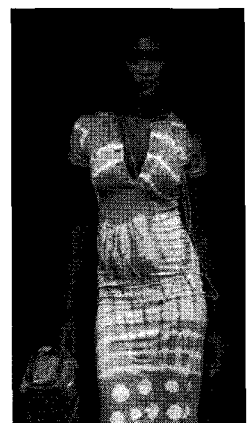
〈11-3〉 Bonga Bhengu 01 S/S



〈11-1〉 D Pollard Don te Ter 03 S/S



〈11-4〉 M.Net a Anglogoid 01 S/S



〈11-2〉 Xuly Bet 05 S/S

〈사진 11〉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스타일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장신구는 목걸이나 귀걸이 등의 악세서리(88.4%)이며, 깃털 등의 머리장식과 동물 가죽을 이용한 허리 장식등도 나타났다.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는 아프리카의 전통 장신구에서 나타나는 금, 호박, 컬러플한 비즈 장식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의복을 대체하는 과장된 장신구의 경향보다는 현대화된 복식에 잘 어울리는 모던한 장신구의 형태로 나타났다. <사진 11-3> <사진 11-4>

#### IV. 결론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아프리카 스타일을 살펴보기 위해 2000 S/S에서 2005 F/W 4대 컬렉션과 아프리카 디자이너의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문화의 활용 사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10>과 같다.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아프리카 문화의 활용 사례로 4대 컬렉션 218점과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 80점의 사례를 형태, 문양, 장신구의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아프리카 대륙의 전통 복식은 문화적인 지역과 식생지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구분되며, 전통 복식은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바디 페인팅과 비즈 이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입지 않으며 다양한 장식이 나타나는 지역과, 서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지역의 로브나 램퍼 등 드레이프되는 직물을 사용하는 것에 기초한 의복의 두가지 형태로 분류되었다.

둘째, 전통복식의 형태적인 활용은 4대 컬렉션과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공통적으로 전통 복식의 현대화 경향과 서구 복식에 전통적 이미지를 부수적으로 가미하는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의 경우 서구 복식에 전통적 이미지를 가미하는 경우가 77.5%, 4대 컬렉션의 경우 89.4%로 4대 컬렉션과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공통적으로 서구복식에 아프리카 전통 이미지를 가미하는 경우 대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

에서는 현대에도 일상복식에서 서구복식과 함께 혼재되어 착용되고 있는 서아프리카의 램퍼의 형태를 이어가면서도 테넨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고, 또한 착용방식의 변화를 통해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화를 수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아프리카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기보다는 현대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원시적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아프리카의 변화와 노력이 복식을 통해서도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4대 컬렉션에서는 아프리카 전통 복식의 형태를 활용하기보다는 문양이나 장신구를 통해 아프리카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대자연에 대한 동경, 부족 문화, 원시적이라는 다소 고정된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아프리카 전통에 대한 이해나 변화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현실에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서구인이 동경하는 아프리카의 자연의 이미지나 원시적인 느낌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표현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직물 디자인의 경우 4대 컬렉션과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공통적으로 아프리카 전통 직물 디자인이 내포한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장식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는 원색적인 컬러와 기하학적 문양 등 서아프리카의 직물 디자인의 영향이 두드러지며, 자연 문양의 경우에도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표현하기보다는 자연물을 기하학적으로 묘사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아프리카 전통 직물 디자인의 경향을 이어간다. 주목되는 차이는 4대 컬렉션에서 아프리카풍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다양한 동물문양(36.2%)으로 4대 컬렉션에서 아프리카 풍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양이나, 아프리카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는 단 하나의 사례도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의 표현이며, 또한 4대 컬렉션에서는 아프리카의 전통 직물디자인을 활용함에 있어 이를 서구적인 문양이나 다른 지역의 전통 문양과 혼용하여 활용하는 다수의 사례가 나타났다.











넷째, 장신구의 경우, 아프리카 문화의 상징이라 할 정도로 다양하게 발달해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와 함께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문화 요소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신구의 경우 4대 컬렉션과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공통적으로 현대화된 복식에 악세서리로 활용하여 표현되지만, 아프리카 디자이너

의 컬렉션에서는 전통 복식에서 의복을 대체하는 과장된 장신구의 경향보다는 현대화된 복식에 어우러지는 간소화된 악세서리의 기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대 컬렉션에서는 이에 반해 아프리카 부족문화의 원시적이고 화려한 장신구

<표 10>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아프리카 스타일

(2000 S/S~2005 F/W)

구분		4대 컬렉션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
형태	동 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사이족의 마사빠이나 칸카의 형태를 더욱 과장하여 표현하였으며, 원색의 비즈 대신 메탈릭 등 현대적인 재료를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사이족의 칸카나 마사빠이등의 형태 활용, 마사이족의 화려하고 과장된 장신구의 형태를 간소화하고 서구화된 복식에 악세서리로 활용</li> </ul> 
	서 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수 나타나는 않으나 서아프리카 랩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물 문양과 트렌드 컬러등을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아프리카 랩퍼의 착장방식의 간소화, 현대적인 블라우스 등과의 착용 방식의 변화, 데님, 쉬폰 등 현대적인 소재 활용</li> </ul> 
	북 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프탄에 동물 문양등을 활용하여 아프리카풍을 상징적으로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프탄에 아프리카의 전통 문양과 대체로운 컬러를 집속시켜 현대패션 디자인으로 활용</li> </ul> 
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물 문양의 활용이 36.2%로 서구 컬렉션에서 아프리카풍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양</li> <li>현대 아프리카의 변화된 모습이나 아프리카의 전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서구인이 동경하는 원시 자연 그대로의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아프리카 전통 직물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 문양과 자연물 역시 상징적으로 묘사하여 표현하는 아프리카 전통 직물 디자인의 경향을 이어감</li> </ul> 
	장신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프리카 전통 장신구의 대담하고 화려함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착용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프리카의 다양한 장신구, 호박, 금, 컬러플한 비즈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과장되게 표현하기 보다는 현대화된 복식에 어울리는 모던한 장신구의 형태로 제안함</li> </ul> 
비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구 복식에 전통 이미지 가미(89.4%)</li> <li>동물문양(36.2%)</li> <li>변화된 아프리카의 모습보다 서구인이 동경하는 원시 자연 그대로의 아프리카의 모습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구 복식에 전통적 이미지 가미(77.5%)</li> <li>동물문양(0%)</li> <li>전통복식의 형태를 고수하기 보다는 서구화된 복식에 아프리카 문화의 요소를 가미하는 경우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li> <li>아프리카 부족의 전통을 고수하기보다 서구화를 적극 수용, 착장 방식의 현대화, 간소화를 통해 원시적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아프리카의 변화의 노력이 복식을 통해 나타남</li> </ul>

를 더욱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아프리카 스타일을 연구함에 있어 4대 컬렉션과 아프리카 디자이너의 컬렉션에 나타난 아프리카 문화의 활용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세계적인 트렌드로서 아프리카 문화의 활용 경향과 함께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시대의 미의식을 반영한 새로운 정체성 창조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의 경우 4대 컬렉션과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공통적으로 아프리카 전통 복식의 형태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서구화된 복식에 아프리카의 문화 요소를 가미하는 것으로의 형식적인 공통성은 있으나 의미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대 컬렉션에서는 아프리카 문화를 활용하고 표현함에 있어 진정한 의미의 아프리카의 전통과 문화 요소를 활용이라기보다는 동물 문양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부족 문화의 원시적이고 자연 그대로의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프리카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는 아프리카의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의 원천을 활용하는 경향으로 아프리카 부족의 전통 문화와 복식을 고수하거나 부각시키기보다는 아프리카의 문화를 현대적 보편성에 맞는 독창적인 감각으로 재창조하고자 하는 아프리카 디자이너의 노력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원시적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 4대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아프리카 문화와는 차별화되는 경향으로 아프리카 디자이너가 컬렉션에서 표현하는 아프리카의 문화는 주목할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아프리카 스타일을 여성복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아프리카 디자이너의 경우 아직은 소수의 디자이너 컬렉션에 대한 분석만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또한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색과 소재는 형태, 문양, 장신구와는 달리 그 활용에 있어 현대적인 유행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변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사진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에 있어 가시적인 명확한 조형성의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따로 항목을 분류하여 두지 않고, 형태, 문양 등과 함께 살펴보았음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아프리카의 변화와 아프리카 디자이너의 컬렉션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와 함께 아프리카 전통의 색과 소재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Jose Teunissen (2005). *Global fashion/Local tradition*. Terra, p. 9.
- 2) *ibid.*, p. 15.
- 3) *ibid.*, p. 160.
- 4) 허리에 두르는 천
- 5) Feances Kennett (1994). *World Dress*. Reed International Books Limited, p. 76.
- 6) Kente 천은 한때 왕족만이 사용할 수 있었으며, 중요한 종교적 또는 사회적 행사에만 입었다.
- 7) Mary S. Parker (2002). *The Folkwear Book of Ethnic Clothing*. Lark Books, p. 12.
- 8) 황은정 (2004). 아프리카 이미지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 11.
- 9) *ibid.*, p. 11.
- 10) *ibid.*, p. 491.
- 11) Andela Fisher (1984). *Africa Adorned*.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p. 171.
- 12) *ibid.*, p. 88.
- 13) *ibid.*, p. 121.
- 14) *ibid.*, p. 173.
- 15) 유태순 외 공저 (2006). 세계 민속의상의 이해. 신정, p. 202.
- 16) 문혜강 (2001). 마사이족의 시각적 이미지를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pp. 13-14.
- 17) 유태순, *op. cit.*, p. 203.
- 18) 문혜강, *op. cit.*, p. 16.
- 19) *ibid.*, p. 8.
- 20) *ibid.*, p. 10.
- 21) *ibid.*, p. 17.
- 22) 유태순, *op. cit.*, p. 178.
- 23) *ibid.*, p. 179.
- 24) 김수영 (1993). 아프리카 직물의 기법과 지역별 특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p. 43.
- 25) [www.samsungdesign.net/report/morocco](http://www.samsungdesign.net/report/morocco)